



# 칭포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VOL. **35**  
2019 / 11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TRACTORS IN INDONESIA

**ACT** PT. Asia Chemical Industry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힘!

# ACI 건축 페인트가 만듭니다

바닥 에폭시 / 지붕 페인트 / 벽 페인트 / 보호 페인트 / 시공 가능



조도진 이사  
0822-3067-5573  
jodojin@aci-yuwon-biz.com

김택용 차장  
081-1978-1066  
kimty81@aci-yuwon-biz.com

김재옥 과장  
0812-8384-8882  
kimjaeok@aci-yuwon-biz.com

윤제웅 사원  
0822-1348-8826  
jeungyun@aci-yuwon-biz.com

## 조코위 대통령 “새 수도, 두바이보다 더 좋은 도시로” 보르네오섬에 스마트시티로 추진...재원 마련이 관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새 수도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보다 더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우리는 꿈을 크게 꾀야 한다”며 “두바이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

복한 도시가 되길 원한다는데, 우리의 새 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혁신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건설 엑스포’ 개막식 연설에서 새 수도를 행정 중심뿐만

아니라 혁신과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고 이같이 발언했다고 일간 콤포스 등이 보도했다.

그는 또 “새 수도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기관과 현대적인 병원,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첨단기술센터가 갖춰져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있는 인도네시아 인재들이 새 수도에 자리 잡고, 더 많은 인재를 끌어들이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수도로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다음날 자신의 트위터에 “새로운 수도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라며 “나는 대중교통을 포함

해 탄소배출이 없고,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 다원적이고 개방적이며 관대하고, 조화롭게 사는 도시를 상상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구의 57%가 자바섬에 몰려 있다 보니 난개발과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 보르네오섬(칼리만탄) 동부에 행정 수도를 건설하고 자카르타는 경제와 산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분산하기로 정했다.

보르네오섬은 세계에서 3 번째로 큰 섬으로, 인도네시

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3개 국가의 영토로 나뉘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에 새 수도 건설을 시작해 2024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한다.

초기 정착 인구는 150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20만명의 공무원과 2만 5천여명의 경찰과 군 병력이 포함된다.

새 수도의 건설비용은 대략 330억 달러(40조원)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건설비용 가운데 대부분을 ‘민관협력 형태’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라 재원 마련이 새 수도 건설 계획 실행의 관건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 마셀라 광구 LNG 플랜트 건설지 따남바르섬으로 결정

인도네시아 석유가스상류사업 특별관리감독기관(SK-KMigas)는 마셀라 광구의 아

바디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를 따남바르섬에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7년 가동 연 생산 능력 950만톤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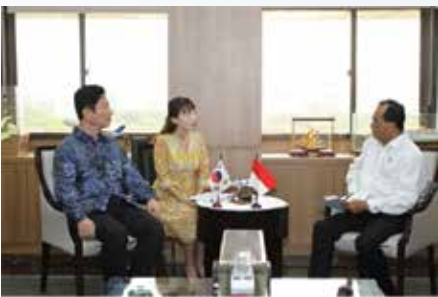
현지 언론 끈판 4일자 보도에 따르면 말루꾸주의 무랏 이스마일 주지사는 “2020년에는 토지 취득 및 환경영향평가(AMDAL)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마셀라 광구의 천연가스 가채 매장량은 약 18조 5,000억 입방피트, 투자액은 18조 5,000억~19조 8000억 달러에 달해 독립 이후 최대의 투자 금액이 된다. 운영 주체인 SKKMigas과 국제석유개발계약(INPEX)이 생산분배계약이 끝나는 2055년까지 플랜트를 가동한다.

INPEX에 따르면 가스 구입 기업으로 국영 전력 PLN과 국영 가스 PGN이 후보에 올랐다.

[연합뉴스]

##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 인도네시아 철도사업 수주 총력



▲ 면담하는 김상균(왼쪽) 이사장과 부디 카르야(오른쪽)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철도공단 제공)

자카르타 방문해 고위 관계자들 면담, 사업역량 등 설명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경전철 등 한국

철도 사업진출 확대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공단이 입찰 참여를 준비 중인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7.5km) 사업관리용역은 건설공사 발주와 감독 외에 차량 구매와 연말 개통을 앞둔 경전철 1단계(5.9km) 구간과 연장 운행을 총괄하는 사업까지 포함돼 있다.

김 이사장은 부디 카르야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고속철도와

기존선 고속화(최고운영속도 시속 230km) 등 기술적 강점을 설명하고, 함께 철도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드위 달요토 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 사장도 만나 공단의 철도건설 노하우 등 사업수행 역량을 소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역량 전수 방안을 논의했다.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 사업 관리용역 협력사인 글로벌 기업 에이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링 1위 공기업 빌라마 까리아 대표도 만나 사업 수주를 위한 전략적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합동 수주팀을 격려

했다.

김 이사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철도 시장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 사업관리 용역 수주를 시작으로, 매단 광역 경전철 사업 수주와 발리 파판 신수도 철도 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17년 1월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사업을 수주해 국내 협력사와 함께 시스템 분야 사업관리와 공사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연합뉴스]

### PT. HANINDO EXPRESS UTAM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물류 운송과 PROJECT CARGO 운송 전문업체**  
**HANINDO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SINCE 1993)**

#### 업무안내

- 수출입 화물 해상, 항공 운송
- 수출입 화물 통관 (INTERNET MODUL) 및 내륙 운송
- PROJECT CARGO 및 건설 장비 운송
- 특수 장비 국내외 운송
- LCT / BARGE TRANSPORTATION
- 해외 이주 화물 (이삿짐) 운송 및 통관



LCT Transportation



BARGE Transportation



REACTOR Transportation  
(LxWxH @ 35.0X7.95X8.45 M)



TRANSFORMER Transportation  
(LxWxH @ 11.8X4.4X5.5 M/288 TON)

“ 항상 고객의 믿음과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 날 것을 약속합니다 ”

Granadi Building 7th Floor South Wing,  
Jl. HR. Rasuna Said Kav. 8-9 Kuningan Jakarta 12950 - Indonesia  
Telp: (+62 21) 2525-123 Fax: (+62-21) 2520-551, 2520-556  
Email: hanindo@hanindo.net Website: www.hanindoexpress.com  
HP: 081-848-5570 (Mr. CHO) HP: 0821-3247-7571 (Ms. KIM)

# 인도네시아, 투자제한목록 개정 방침... “외국인 투자 허용하겠다”



최근 우울한 경제 성적표를 받은 인도네시아가 투자제한 목록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투자제한목록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49개 산업을 작성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를 아예 배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매체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하르타르 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투자제한목록을 개정해 도박, 마약, 화학무기, 야생동물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는 자국 및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또한 수출에 도움이 되고 수입품을 대신할 수 있는 자국산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우선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투자제한목록을 개정해 투자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최근 경제 성적이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5.02%로 집계돼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제품 및 서비스 수입과 투자도 각각 8.91%, 4.21% 감소했다. 또한 재정지출은 0.98% 증가에 그쳐 내수수요를 끌어

올리지 못했고, 수출 증가율은 0.02%에 불과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투자의 기여율은 지난해 4.21%로 전년동기(6.96%)보다 감소했다. 이는 투자 증가율이 GDP의 약 1/3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도박과 마약처럼 정부가 통제해야 하거나 화학무기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이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석탄가스, 자동차, 전자제품 등 부가가치가 높고, 수출에 도움이 되는 산업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전문가들은 투자제한목록 개정이 투자를 끌어들이는 순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모하메드 파이살 경제개혁센터(CORE) 대표는 “목록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반길 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어떤 산업을 투자제한목록 혹은 투자진흥목록에 넣을 것인지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타임즈

# 코트라, ‘RCEP 주축’ 아세안 인프라시장 진출 지원 확대

## 마닐라서 ‘한·아세안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140여개 국내외 기업 참가

코트라는 6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프로젝트 플라자’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플랜트산업협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인프라 협력 포럼, 수출 상담회,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됐으며, 건설·수처리·에너지 분야의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 업체 100개사와 국내 기업 40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타결된 직후에 열려 더 관심을 끌었다.

행사에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의 유력 발주처 관계자가 연사로 초청돼 아세안 프로젝트 현황과 수주 전략을 설명하며,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다자개발은행을 활용한 개발 전



▲ 코트라, 마닐라서 ‘한-아세안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코트라는 6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프로젝트 플라자’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행사. [코트라 제공]

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 회원국의 정부부처와 민간 기업들이 20여개 한국 기업들과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통상 압력이 거세지면서 대체 시장 발굴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아세안 인프라 시장에서 진출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인니, 파푸아에 우주선 기지 건설...2024년 큰 로켓 발사

인도네시아 국립항공우주연구소(LAPAN)가 파푸아의 비악(Biak)섬에 첫 우주선 기지를 건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소 측은 “자바섬 가룟(Garut)에 로켓 발사장이 있지만, 이제 더 큰 규모의 우주선 기지가 필요하다”며 “비악섬과 모로파이(Morotai)섬, 응가노(Enggano)섬 등 3곳의 후보지를 연구한 결과 비악섬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비악섬은 적도에 가깝고, 동쪽 해안이 태평양 쪽을 향해 로켓 발사에 적합한 것으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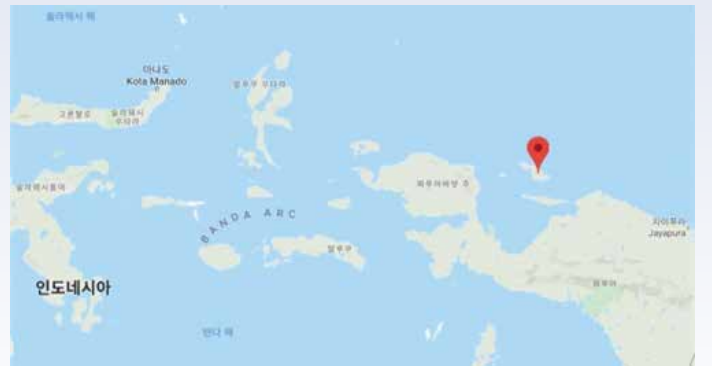
토마스 다말루딘(Thomas Djamaluddin) 항공우주연구소 사무총장은 “우리 연구소는 이미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다”며 “다음 목표는 직접 만든 로켓에 위

성을 실어 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 큰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 우주선 기지 1단계 공사를 그 이전에 끝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1980년대에 이미 비악섬 북부에 100헥타르(1km<sup>2</sup>)의 땅을 마련해두었다.

인도네시아 항공우주법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소가 로켓 발



사와 우주선 기지 건설·운영을 담당한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국제 협력

을 통해 우주선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남선알미늄
 (주)미안 ACE WINDOW
 이지폴딩
 현대홈도어

**PT. KAISAR SINAR HISASH**  
 www.siansash.co.id / www.pintulipat.id

# 우리는 **窓門**을 만듭니다!

시안의 **窓門**전문가들이 직접 설계, 제작하고 책임시공을 약속합니다.

**HEAD OFFICE / FACTORY JAKARTA**  
 Jl. Pahlawan KM 1, Karang Asem Timur  
 Citeureup – Bogor 16810 Indonesia

Telp. : 021-8794-3838 Fax.: 021-8794-3839  
 Email : info@siansash.co.id

# 인니 3Q 투자실현액 18% 증가 ... 자바섬 외 투자 확대로 증가율 상승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지난달 31일 올해 3분기(7~9월) 투자실현액(석유·가스, 금융 제외)이 현지 통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05조 7,000억 루피아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14% 증가한 전분기(4~6월)에서 성장률이 더욱 확대되어 증가한 결과다.

올해 3분기에는 정부가 특히 자바섬 이외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지역 투자가 신장했다.

해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105조 루피아, 국내직접투자(DDI)는 19% 증가한 100조 7,000억 루피아였다.

FDI를 국가 및 지역별로 보면 싱가포르가 19억 4,881만 달러로 투자액 선두였다. FDI 전체의 27%를 차지했으며, 프로젝트 안건 수도 2,6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은 8억 8,138만 달러였다. 전기의 2위에서 4위로 하락했지만 안건 수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로 1,585건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FDI는 운수·창고·통신에 18억 4,263만



▲ 바흐릴 라하달리아 신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달러(302건)의 최대 투자를 기록했으며, DDI는 전기·가스·수도가 15조 7,874억 루피아로 최대였다.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BKPM 청장은 “4월의 대선과 총선이 평화롭게 진행된 것은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바섬 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자바섬 외 경제특구(KEK)와 ‘10 뉴발리(10 New Bali · 발리만큼 매력적인 관광지 10곳을 선정)’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주요했다”

며 “앞으로도 자바섬 이외의 투자가 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바섬의 투자액은 112조 1,000억 루피아(전체의 55%), 자바섬 이외의 지역은 93조 6,000억 루피아(46%)로 그 차이는 줄고 있다. 이달 초 아구스 구미왕 가르따사스미따(Agus Gumiwang Kartasmita)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도 자바섬 이외의 공단 18개소에 대한 FDI가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지 매체 인베스터데일리의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내놓은 연구개발(R&D)

실시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투자 실현을 통한 고용 창출은 21만 2,581명이었다. DDI에 의한 고용이 약 10만 9,475명, FDI에 의한 고용이 약 10만 3,106명이었다.

올해 1~9월까지 실현된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601조 3,000억 루피아였다. 이 중 DDI가 17% 증가한 283조 5,000억 루피아, FDI가 8% 증가한 317조 8,000억 루피아였다.

연간 목표액인 792조 루피아에 대한 달성률은 76%였다. 현지 매체 켈포에 따르면, 바흐릴 청장은 “이 상태라면

높은 확률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해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의 협력 강화 ◇자바섬과 자바섬 외부의 격차 해소 ◇투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 가지에 주력할 방침을 표명했다.

국가 및 지역별로 본 FDI의 상위 3개국은 싱가포르가 약 54억 달러로 선두였다. 이어 중국이 33억 달러, 일본이 32억 달러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3위였던 중국은 투자를 늘려 일본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 수도권 아파트 공급 가속... 13만호 추가 예상

부동산 컨설팅 회사 사빌스 인도네시아(Savills Indonesia)는 2022년까지 수도 자카르타를 제외한 서부 자바주 보고르, 데벡, 브카시와 반뜰주

망으랑의 수도권(bodetabek, 보데타벡)에서 새롭게 총 12만 9,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지 매체 켈포에 따르면, 한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자카르타에서는 신규 공급 수가 5만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사빌스에 따르면, 보데타벡의 현재까지 공급 수는 총 9만 7,200 가구로, 1~9월까지 판매량은 총 6,800호(戶)였다. 사빌스의 안톤 조사·컨설팅 부장은 “보데타벡에서는 향후 4년동안 현재까지의 공급 가구수를 웃돌 기세”라며 “자카르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건설 용지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데타벡에서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하고자 한다”며 중앙은행, OJK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비마 경제학자는 “5.3%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수출품의 수요 및 가격 하락과 더불어 국내 건강 보험료와 고속도로 요금 인상 등으로 중산층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 일용품의 소비 감소와 수출 감소를 막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 정부, 경제성장을 위한 아홉 가지 전략 발표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 금융감독청(OJK)은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인 5.3%를 달성하기 위해 9개 전략을 내세웠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도 목표로 한다.

현지 언론 인베스터 데일리 4일자 보도에 따르면 9개 전략은 (1) 중앙은행의 정책과 정부 경제 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 (2) 정부, 중앙은행,



OJK의 협력 강화 및 차량과 섬유, 전기 등의 제조사업 분야 개발, (3) 투자 절차 간소화 및 인프라 개발 진행, 경제특구와 관광특구 개발, (4) 동남

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협력 강화 및 무역 투자 활성화 도모, (5) 세금 우대 조치 시행, (6) 천연자원의 하류 산업 발전과 수입 대체 국산화 가속, (7)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전자 결제 시스템 보급, (8) 국가 예산 확대, (9)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관리 등이다. 스리 재무장관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산업을 강화하는 여러 정책을 시

**PT. KUMGANG INTERNATIONAL**

# 35년 경험과 기술의 기업!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죠 ㅎㅎ  
35년 알루미늄 샷시문 생산 외길을 걸어온  
장인정신으로  
인도네시아 문(門)시장을 활짝 연다!



●알루미늄 접이식 홀딩도어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전동/방화 셔터 시스템 ●방화문 & 패션도어 ●디지털 도어록

Showroom : JL. Panglima Polim Raya No. 60A Jakarta Selatan  
Tel : 021 2930 5937 Fax : 021 2930 5938

Factory : JL. Pengampelan Rt. 06 Rw. 03 Kp. Nambo Kaserangan Cirus Serang, Banten 42182  
www.kgfiredoor.com E-MAIL : kumgang.int@gmail.com

## 포스코건설, 인니 현지 건설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원원”



포스코건설(대표 이영훈)이 해외사업 현장의 현지 기능인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설기능인력 양성 교육 수료식을 진행했다.

지난 9월 '건설기능인력 양성 교육센터'를 개설하고 2개월에 걸쳐 전기·설비·조직·용접·안전 분야의 초급건설기능인력 100명을 배출한 결과다.

교육수료생들은 포스코건설이 자카르타에서 시공 중인 주상복합 빌딩사업인 '라자왈리 플레이스' 현장에 취업해 건설기능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7년 1330억원에 수주한 '라자왈리 플레이스'는 자카르타 중심업무지구의 옛 포시즌 호텔을 개축(改築)하고, 55층 아파트 1개동과 27층 오피스 1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준공은 내년 9월 예정이다.

이상춘 포스코건설 상무는 “건설기능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며 “교육수료생 모

두가 그동안 배운 기술을 현장에서 십분 발휘해 고급기술자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 연좌현에서 용접직업학교를 운영해 180여명의 기능인력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미얀마에서 60명의 건설기능인력을 양성했다.

포스코건설은 동남아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건설기능인력 양성교육센터를 운영해 초·중급 기능공을 양성할 계획이다.

[팩스경제TV]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 PT. SEPULUH SUMBER ANUGERAH 새 가족을 찾습니다.

구분	내용
업종	건설업
구인인원	1. 토목 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년) 2. 건축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년) 3. 플랜트 배관 프로젝트 매니저 :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년) 4. 기계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년)
주요업무내용	각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부터 유지 관리 단계까지의 발주자, 사업관리자, 건설 사업자, 설계/감리자 사이의 정보 흐름 관리 및 경영
우대사항	- 대졸이상 - 50 세 미 만 - 건설사 경력 5년 이상 - 인니어, 영어 능통자 - 인니 건설현장 유경험자 우대 - 토목, 건축, 플랜트 배관, 기계 관련 현장 경험 있는 자 우대
제출서류 및 선발절차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전 근무지별 담당업무 및 실적) - 1 차 - 서류, 2 차 - 면접, 3 차 - 대표이사 면접 * 서류제출 및 문의 IBRAHIM HWANG (Tel : 0811100937) E-mail: ibrahim-hwang@pt-ssa.co.id



김재훈의 세무상식

##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소세(PPnBM) 개정



김재훈 대표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친화적 차량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PPnBM)와 관련한 정부령 73호(Peraturan Pemerintah No.73 / 2019 (PP-73/2019))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령 73호는 2019년 10월 16일 발표되었지만 2021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PP-73/2019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결정 사양

새로운 결정 사양은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 및 전력 기능으로 특별소비세(PPnBM) 세율도 차등화 하였고 승객 수, 배기량 및 기계 유형과 같은 기존 결정 사양 중 일부는 그대로 유지된다.

### 2. 특별소비세율(PPnBM)

배기량 3000cc 이하  
1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  
Motor Bakar Cetus Api & Motor Bakar Diesel atau Semi Diesel  
- CO2 150 gram / km 배출 : 15%  
- CO2 150gram ~ 200gram / km 배출 : 20%  
- CO2 200gram ~ 250gram / km 배출 : 25%  
- Co2 250grm 초과/ km 배출 : 40%  
2. 연비기준  
Motor Bakar Cetus Api

- 15,5km/liter 이상 : 15%
  - 11,5km/liter~15,5km : 20%
  - 9,3km/liter~11,5km/liter : 25%
  - 9,3km/lite 미만 : 40%
- Motor Bakar Nyala Kompresi(Diesel atau Semi Diesel)
- 17,5km/liter : 15%
  - 13km/liter ~17,5km/liter : 20%
  - 10,5km/liter~13km/liter : 25%
  - 10,5km/liter 미만 : 40% <끝>

###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차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 Kriteria Kendaraan Bermotor yang Dikenai PPnBM dengan Kapasitas Isi Silinder s.d 3000 cc

#### Motor Bakar Cetus Api

- Tarif 15% untuk tingkat emisi CO2 < 150 gram/km
- Tarif 20% untuk tingkat emisi CO2 mulai dari 150 gram/km s.d 200 gram/km
- Tarif 25% untuk tingkat emisi CO2 > 200 gram/km s.d 250 gram/km
- Tarif 40% untuk tingkat emisi CO2 > 250 gram/km

#### Motor Bakar Nyala Kompresi (Diesel atau Semi Diesel)

- Tarif 15% untuk tingkat emisi CO2 < 150 gram/km
- Tarif 20% untuk tingkat emisi CO2 mulai dari 150 gram/km s.d 200 gram/km
- Tarif 25% untuk tingkat emisi CO2 > 200 gram/km s.d 250 gram/km
- Tarif 40% untuk tingkat emisi CO2 > 250 gram/km

#### Motor Bakar Cetus Api

- Tarif 15% untuk BBM > 15,5 km/liter
- Tarif 20% untuk BBM > 11,5 km/liter s.d 15,5 km/liter
- Tarif 25% untuk BBM mulai dari 9,3 km/liter s.d 11,5 km/liter
- Tarif 40% untuk BBM < 9,3 km/liter

#### Motor Bakar Nyala Kompresi (Diesel atau Semi Diesel)

- Tarif 15% untuk BBM > 17,5 km/liter
- Tarif 20% untuk BBM > 13 km/liter s.d 17,5 km/liter
- Tarif 25% untuk BBM mulai dari 10,5 km/liter s.d 13 km/liter
- Tarif 40% untuk BBM < 10,5 km/liter

\*Berlaku Mulai 16 Oktober 2021

Sumber Data : Peraturan Pemerintah Nomor 73 Tahun 2019

http://ortax.org/mobile/

## 한전, 꿈의 기술 초전도 송전 상용화 ... 세계 최초



▲ 한국전력 본사

### 신갈-흥덕 1km 구간 설치...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 확보

한국전력이 세계 최초로 초전도 송전을 상용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다.

한국전력은 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흥덕 에너지센터(변전소)에서 세계 최초 초전도 송전 상용화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전도 케이블은 기존 구리 도체를 전기저항이 없는 초전도체로 대체한 케이블이다. 송전손실이 기존 케이블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감되는 것은 물론, 송전용량은 5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어 선로 증설이 어려운 대도시나 과부하로 교체가 필요한 선로에 적합하다. 이번에 준공된 23kV 50MVA 차세대 송전 시스템은 신갈-흥덕 에너지센터(변전소) 간 약 1km 구간에 세계 최초로 초전도 전력케이블을 활용한 송전기술을 적용해 상용화한 것으로, 올해 7월 시험운전을 해 준공식 이후인 11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3kV 50MVA 초전도케이블 1035m, 150억원이 소요됐

며 LS전선이 제작 시공했다. 이번 초전도 상용화 사업을 통해 한국은 올해 10월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행하는 백서에 '세계 최초 초전도 상용국'으로 등재돼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정부 지원으로 진행된 초전도분야 기초과학기술 육성정책(DAPAS)을 통해 초전도 송전분야의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글로벌 초전도 전력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초전도 전력기술 개발 선진 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연구 개발에 뛰어 들었으나, 2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설계부터 시험, 생산, 설치 및 운영까지 전 분야에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게 됐다. 연구사업기준 국가별 초전도 기술력 순위는 1위 한국(제주 154kV 600MVA 1000m), 2위 미국(LIPA 138kV 574MVA 610m), 3위 일본(Yokohama 66kV 200MVA 250m)이다. 한전의 적극 지원으로 일본

전략물자로 분류돼 있는 초전도 소재를 중소기업인 ㈜서남에서 100% 국산화했다.

한전은 향후 세계 최초의 154kV 초고압 초전도 송전 상용화 사업 및 23kV급 3상 등축형 초전도케이블을 적용한 초전도 플랫폼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갑 사장은 기념사에서 "미래 핵심기술인 초전도 분야가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초전도 분야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초전도 산업 선순환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도 경제 전문가들 "OSS와 세무 시스템 통합해야"

인도네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투자의 인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하는 OSS(Online Single Submission)와 세무 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업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지 매체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세무 시스템은 복잡하고 OSS와 통합되지 않고 있다"며 "OSS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투자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파자르 이코노미스트는 "복잡한 세무 시스템이 투자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택스 홀리데이(일시 면세 조치) 등의 혜택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OSS의 이용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및 인허가 제도 등 투자 관련 법률을 하나로 정리한 '옴니버스법(Omnibus Law)'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밝은 조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은행이 전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2020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2020 report)'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와 같은 종합 73위를 기록했다.

## 부산 조선기자재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파란불



▲ 부산 조선기자재 무역사절단이 인도네시아 조선소들과 무역 상담을 벌이고 있다.[부산경제진흥원 제공]

선소 3곳을 방문해 기술, 구매, 설계 분야 관계자와 무역 상담을 벌인 결과 모두 68건 720만2천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조선소별 계약추진 실적은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조선소

심을 보였다.

부산경제진흥원은 PT·PAL과 부품 공급 및 자원·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무역사절단에 참여한 기업은 선박 수리 및 건조에 필요한 밸브, 파이프, 피팅, 관 이음새 제품 등 유지·보수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현지 조선소들의 부품 공급처 다변화 수요와 국내 제품의 우수한 품질 및 단가 경쟁력을 연계해 현지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무역사절단에 참가한 김은봉 한국시엠알 회장은 "향후 시장분석을 강화하고 제품 기술력을 내세워 협상을 벌인다면 인도네시아가 국내 기업들의 신규 수출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무역사절단 파견...720만달러 계약 추진 성과

부산지역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아세안 해양강국 인도네시아 시장을 노크한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중소 조선기자재 기업 10곳과 함께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 방문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역사절단들은 현지 국영조

PT.PAL이 293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PT.DUMAS가 213만달러, DPS가 214만2천달러였다.

특히 PT.PAL은 2026년까지 대우조선해양과 1조원 규모 잠수함 수주계약을 추진 중으로, 선박의 수리 및 유지 보수 관련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 제품에 높은 관

##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0(庚子年)년을 준비하세요!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2020



###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는 : 0858 9060 0962, 021 3002 9090 / 91 입니다

## 아시아-태평양 전기공사협회 총회 6~8일 광주서 열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기공사협회 연합회(FAPECA) 총회와 콘퍼런스가 6~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는 한전이 개최하는 BIXPO 2019와 연계 개최돼 8개 회원국(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하와이)에서 116명의 해외대표단 등 총 400여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행사 첫째 날인 6일 관계자들의 BIXPO 전시회 참관과 환영 만찬 등이 있고, 7일엔 Power System Interconnection(전력계통연계)이란 주제로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문재도 전 산업부차관, 조환익 전 한전사장, 유동욱 전기연구원 부원장이 주제 발표한다.

8일엔 관계자들이 BIXPO 테크니컬 투어에 참석하고 한전 ESS센터, 한전전력연구원 등을 방문한다.

FAPECA는 1986년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제안으로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전기공사협회 연합체를 조직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연 1회 총회에서 주제발표, 이사회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기공사협회 간 민간 교류와 정보교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FAPECA 총회·콘퍼런스는 1986년 서울에서 제1회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회원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돼 올해 33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8년 만에 개최된다.

한국전기공사 회장인 류재선 FAPECA 의장은 5일 "BIX-PO 2019와 연계 개최로 대한민국 전력 분야 신기술의 최신 트렌드와 전략을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전력산업 정부정책과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한국전기공사협회 건물 전경 [연합뉴스 자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왜 '두산 테크데이' 개최를 요청했을까

두산은 11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로보틱스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 '두산 테크데이(Tech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산 테크데이는 인도네시아 정부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한 과학기술청(BPPT) 전시공간에서 14일 하루 동안 진행됐다. 특정 기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과 지원을 받아 단독으로 전시회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쌓아온 신뢰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이번 행사에는 루훗 빈사르 판자이판(Luhut Binsar Pandrajaitan) 해양조정부 장관을 비롯해 장관급 정부 관계자들과 인도네시아 주요 국영기업 사장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김창범 대사, 이현순 두산그룹 기술담당 부회장, 백형범 두산인프라코어 엔진 영업담당 전무, 현지 진출한 투자회사 및 사업 파트너 등 200여명이 함께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두산 테크데이에 디젤엔진과 후처리부품 등을 전시하고, 현

지 엔진기업과 함께 추진 중인 '국영 엔진 생산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Indonesian National Engine Manufacturing Project)'를 소개했다. 신규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과 바이오디젤 적용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 엔진 및 후처리 기술에 대한 기술 세미나도 열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2007년 인도네시아 시장에 첫 진출한 이후 다양한 발전설비 사업을 진행해 왔다. 두산인프라코어도 엔진사업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과 인연을 맺고 있다. 두산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지진 발생 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8월 인도네시아 국영 엔진생산 기업 BBI(PT Boma Bisma Indra)와 엔진 생산 및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부분조립(Dress up/SKD), 완전조립(CKD) 등의 단계를 거쳐 BBI의 엔진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EPC사업과 발전 기자재, 가스터빈 등의 기술과 더불어 해외 네트워크를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 정

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인 PT. PLN과 약 1200억 원 규모의 '팔루(Palu)3' 화력발전소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2017년에는 무아라타와르 복합화력발전소 전환사업을 수주하는 등 인도네시아 발전시장에서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산업차량,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은 협동로봇과 지게차, 수소연료전지 드론 등 각사별 주요 제품 라인업을 소개하며 전시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인도네시아는 2억70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4위 규모의 인구를 보유하고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잠재력 높은 시장이다. 현재 약 52GW인 인도네시아 발전 시장은 연평균 8.5% 성장해 2028년 108.4GW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엔진 시장은 차량 및 산업용 수요를 바탕으로 지난해 5만5000대에서 2025년 7만1000대로 연평균 5%대 성장이 예상된다.

이현순 두산그룹 기술담당 부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두산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알린 특별한 행사"라며 "국가 정책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전수와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시스

## 현대, 인니 전기차 산업에 10억 달러 투자



한국 자동차 대기업 현대는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산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국에서 현대와 투자협약에 서명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 콤포스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루훗 해양투자

조정장관은 "현대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서명한 이후 서부자바 까라왕 600헥타르 지역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말했다. 루훗 장관은 이어 "전기자동차 생산에 인도네시아 국산 원자재 탄소강 등을 사용할 것을 현대에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 인도네시아 내년 최저임금 8.51% 인상... 노사 모두 불만

### 지역 따라 2배 이상 차이...의류·봉제산업 중부 자바쪽으로 이전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8.51%로 정하자 근로자 측에서는 너무 적다고 반발하고, 생산자 측에서는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13일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인플레이션 3.39%와 경제성장률 5.12%를 합산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51% 올리라고 기준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6년 11.50%, 2017년 8.25%, 2018년 8.71%로 꾸준히 올랐다.

인도네시아는 주, 시·군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가장

높은 곳은 수도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이다.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은 올해 394만973 루피아(32만8천원)에서 내년도 427만6천349 루피아(35만5천원)로 오른다.

인근 보고르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416만9천808 루피아(34만7천원)로 올린다.

반면, 중부 자바 주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174만2천여루피아(14만5천원), 동자바주는 176만8천여루피아(14만7천원)로 15만원이 안 된다.

최저임금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 본래 보고르·브카시·뿌르와카르파·카라왕 등 자카르타 외곽에 있던

의류·봉제·섬유공장들이 빠르게 중부 자바 쪽으로 이전하고 있다.

생산자 측에서는 “임금은 빠르게 오르는데 생산성은 그만큼 따라 오르지 않는다”며 “폐업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려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한다.

베트남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5.5% 인상하기로 결정, 월 307만~442만동(약 15만5천~22만4천원)이 된다.

최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중국에서 나온 33개 기업 중 23개가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지난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탈출할 수 있는 열쇠는 ‘투자유치’라며 규제개혁 등 해외 투자자를 끌어올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임금인상이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 디지털 기술 접목 없인 해외시장서 못 버틴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업체도 디지털 기술을 건설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 수주 전략을 다각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산하 건설청은 모듈러를 활용한 건설사업 생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작업 인력과 공사 기간을 줄여 건설 생산성을 약 50% 이상 향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건설산업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건설기술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사전제작 및 모듈러 건축, 3D 프린팅 및 적층제조, 증강현실(VR) 및 가상화, 빅데이터 및 예측 분석, 무선 모니터링 및 연결 장비, 클라우드 및 실시간 협업, 3D 스캐닝 및 사진 측량, BIM, 무인 항공기 등이다.

특히 시공 단계에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 BIM과 클라우드, 로봇틱스, 무인항공기를 통해 시공을 자동화할 수 있고, VR과 지능형 건설장비를 이용해 시공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EPC(설계·조달·시공) 기업인 벡텔은 이미 다양한 디지털 건설기술을 실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공사기간 30% 단축과 공사비 20% 절감을 목표로, 가상 및 증강현실 등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업무 추진 방식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런던 광역고속철도 사업인 ‘크로스레일 프로젝트(The Crossrail Project)’는 BIM,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적용해 170만개의 CAD 도면을 단일 BIM 모델로 통합·운영했다.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복잡성을 해결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석고모형을 제작해 구조물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공사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워싱턴 내셔널스 야구 스타디움 공사는 클라우드 상에 BIM 모델을 사업 참여자들에 공유하도록해 철골 공정 수행시 약 1만 건 정도 발생하는 설계 확인 요청을 100건 미만으로 감소시켰다.

NTT는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BIM과 증강현실 등의 디지털 건설기술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BIM 모델과 데이터를 통합해 유지관리 비용을 약 20% 절감하고 있으며, IBM과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 시스템은 실제 시설물과 BIM 모델을 겹쳐서 나타내는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플랜트 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체계가 구축된다면 해외건설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수주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며 “사전제작 방식의 비중이 높은 플랜트 사업의 특성상 모듈러 방식을 확대하면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 아스트라 오토파트, 현대차에 OEM 공급 목표

인도네시아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 아스트라 오토파트(PT Astra Otoparts)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건설 예정인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 업체로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자 현지 매체 푼판에 따르면, 아스트라 오토파트의 여러 자회사가 현대 자동차가 실시하는 OEM 업체 선정 입



찰에 참여하고 있다.

아스트라 오토파트 관계자는 “현대차는 OEM 부품 공급 업체를 보충하고 있다”며 “입찰에는 많은 부품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 내용 및 참여 자회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아스트라 오토파트의 자회사는 부품 제조 업체 12개사와 판매 회사 2개사 등 총 14개사이다.

한편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 지난 7월 수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과 회담했다. 국내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고 2021년에 조립 생산을 시작하는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투자 및 건설 지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개설



차별화된 디자인

우수한 기술력

건축 설계

건설사업관리(CM/PM)

1967년 건축설계 전문회사로 출발한 정림건축은 탁월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4,7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2017년 영국 BD가 선정한 대한민국 1위 글로벌 건축회사입니다.

주요 설계 분야  
복합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R&D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월드컵경기장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새병원 / 영등포 타임스퀘어 / 중국 심양 롯데월드  
리비아 트리폴리 JW 메리어트 호텔 / 인도네시아 창신 나이키공장  
인도네시아 태평양 워노기리 봉제공장단지 / 이화여대 서울병원 및 의과대학  
폴란드 및 멕시코 만도 공장 / 베트남 롯데몰 하노이 /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스타필드 하남 / 말레이시아 아모레퍼시픽 공장 / 베트남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중국 청도 세브란스병원 **외국내의 다수 실적 보유**



JUNGGLIM | INDONESIA

#506 Tower 2, Synthesis Square,

Jln. Gatot Subroto Kav. 64, No. 177A South Jakarta

Mobile +62 (0)852 1561 9583 / E-mail global@junglim.com

www.junglim.com



## 중부발전, 인니 반동공대와 신재생에너지 세미나 공동개최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인도네시아 반동시 쉼라톤호텔에서 인니 반동공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23일 한국중부발전-인니반동공대 간에 체결한 MOU의 일환으로서 양국 에너지 관련 기관

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중부발전 노용환 신성장사업단장을 비롯해 반동공대 밤방 부총장,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수티자스또프 국장, 인니 전력공사 부디물료노 신재생총괄 책임자 외 정부기관 및 반동공대 교수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인니 신재생에너지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지열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연

구성과가 발표됐다. 또한 중부발전은 국내 기업들과 동반참여해 향후 인니 시장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중부발전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반동공대는 인도네시아 최고 공과대학으로 1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3대 대통령인 하비비 및 전력분야 정부기관 고위관료 등 정치

와 에너지분야 인재를 배출한 명문대학교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4월 '글로벌 CSV'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의 일환으로 반동공대에 'ITB-KOMIPO LAB' (반동공대-한국중부발전 연구소)이라 명명한 신재생에너지 연구소 설립 지원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 매년 신재생분야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인도네시아 신재생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인도네시아 최고 공과대학인

반동공대와 세미나 공동개최를 시작으로 앞으로 인도네시아 신재생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내 4개의 발전소 운영을 통해 5년 연속 연간 200억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만큼 성공적인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인니 정부기관, 대학 및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신재생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이코노미뉴스]

## 공공사업주택부, 2024년에 고속도로 총 연장 5200km 달성 목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의 고속도로통제청(BPJT)은 2024년까지 국내 고속도로를 2,500~3,000km를 건설하고 총 연장을 총 4,700~5,200km 킬로미터 달성이 목표이다. 현지 언론 드퓌크 10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총 연장은 연내 2,186km에 달할 전망이다. BPJT 다낭 청장은 "2024

년 수마트라 종단 고속도로(1,880km)가 개통한다"라며 "수마트라 고속도로만 해도 2,000km이다. 적어도 2,500km 개통은 확실하다"라고 언급했다. 2014~2019년 지난 5년간 개통한 도로는 총 1,500km로 목표치인 1,856km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인니 사라나 글로벌 인도네시아·싱가포르 G8 '맞손' -LS전선 2017년 사업 수주... 620억 규모



▲ LS전선 동해 공장에서 해저케이블을 생산하는 모습. (사진=LS전선)

LS전선이 참여하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해저케이블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맡은 인도네시아 EPC(설계·조달·시공) 업체가 싱가포르 해양 엔지니어링 회사와 손을 잡으며 건설이 본격도에 올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사라나 글로벌 인도네시아(PT Sarana Global Indonesia·SGI)는 싱가포르 G8(G8 Subsea Pte Ltd)과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협력 계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싱가포르 북부와 말레이시아 남부 도시 사이의 바다 1.5km 구간을 해저케이블로 잇는 프로젝트로 내년에 완료

될 예정이다. 찬드라 아리에 세티완(Chandra Arie Setiawan) SGI 최고경영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 자사의 우수한 해저케이블 설치 능력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공급을 담당한다. 지난 2017년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했다. 규모는 약 620억원에 이른다. LS전선은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해저케이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유럽과 중동 등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 균열을 낸다는 전략이다. 해저케이블은 풍력발전기 간 혹은 발전 단지와 변전소 간 송전에 활용된다. 66kV급부터 대용량 전력을 공급하는 초고압 케이블로 분류된다.

LS전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압전력을 송전하는 해저케이블 제조사다. 벨기에 노더 해상풍력발전(225kV), 미국 뉴욕·버몬트주 해저 전력망(230kV), 네덜란드 에네코 룩데르다인 해상풍력발전(150kV)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이탈리아 프리즈미안, 프랑스 빅상스에 이어 업계 3위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LS전선은 작년 4월 국내 기업 최초로 말레이시아 전력청과 400억원 규모의 초고압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말레이시아 페틀리스주와 랑카위섬 사이의 해저 28km, 최대 수심 20m 구간을 전력케이블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올 초에는 대만에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공급했다. 독일 풍력발전 회사인 wpd와 계약을 맺고 대만 서부 원린현 앞바다 해상풍력단지에 66kV급 해저케이블 170km를 납품했다.


www.f1-logix.com

#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 정몽규 회장 ‘깜짝 베팅’ ..아시아나항공 잡았다

아시아나 항공의 주인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의 컨소시엄이 우선인수협상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입찰 가격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승부를 가른 건 역시 입찰 가격이었다. 1조 원대를 부른 경쟁자들과는 달리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2조 5천억 원을 제시했

다. 시장이 예상했던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었다. 인수한 뒤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몽규/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좋은 회사로 만들도록 상당히 노력할 것이고 꼭 좋은 회사로 만들겠다고 했다. 아시아나라는 이름은 그대로 쓰기로 했다.

구조 조정은 아직 생각한 적이 없고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텔과 면세점, 항만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6개 자회사를 함께 인수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금호 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과 옛 주식의 가격 등 구체적인 인수 조건도 지금부터 협상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 달까지 인수를 마칠 예정이다.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 '에쿼티 타워' 로 이전



▲ 에쿼티 타워로 이전한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 입구. [코이카 인도네시아 페이스북]

코이카(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가 지난 11월 4일 에쿼티 타워(Equity Tower)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

1992년 이래로 28년여간 한-인도네시아 우호관계에 기여해온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앞서 업무를 진행했던 신세스스 스퀘어 타워(Synthesis Square Tower)에서 자카르타 한복판에 위치한 수디르만 중심상업지구(SCBD)에 있는 에쿼티 타워로 이전해 접근성이 향상됐다.

에쿼티 타워에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등 우리나라 정부 기관과 단체 및 한국계 회사가 다수 있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 주소는 'Equity Tow-



**KOICA Indonesia**  
새로운 사무소를 안내드립니다

1992년 이래로 28년 여간 한-인도네시아 우호관계에 기여해온 KOICA 사무소는 새로운 도한을 준비하며 사무소를 이전합니다. 아래 주소로 인터넷으로 찾아오실때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quity Tower, 29 Floor, Unit D-H, Lot 9, SCBD  
Jl. Jende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Phone : (021) 51509405-150942, 5153223, 5152525  
e-mail : indonesia@koica.go.id



er, 39 Floor, Unit D-H, Lot 9, SCBD Jl. Jende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이다. 전화번호 (021) 515-0940 또는 515-0942, 이메일 indonesia@koica.go.kr

[데일리인도네시아]



# 소리 항공

## 서울 ~ JABOTABEK 원데이 배송 시스템

###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ADP 국제운송)

특송 쿠리어, 핸디캐리 전문업체  
20년 노하우 핸디캐리, 자체 특송 쿠리어 통관 시스템

**도로명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46, 1층 19번 (공항동, 대한항공 화물청사)  
Telp : 02-2663-7373 / 2663-1947  
Fax : 02-2663-1948  
E-mail : support@soriair.co.kr

**BINTANG JAYA TRANS**  
Ruko Sentra Bisnis Artha Gading Blok A6A No.16  
Kelapa Gading Barat,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 : +62 21 4587 4577 / +62 21 2452 1355

**JAKARTA MANAGER**  
KIM EUK SOO M : +62 813 8075 1111  
KIM KEON WOOK M : +62 812 8411 3703



# 현대차, 印尼공장 내년 착공...동남아 첫 생산기지 만든다

## 이달 말에 투자협약 체결 자카르타 인근...1兆 투입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 델타마스공단에 연산 20만 대 규모의 완성차공장을 짓기로 했다. 동남아시아 지역 첫 생산기지다. 공장 건설에는 약 1조원이 투입된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는 이 공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 동남아와 호주 수출시장을 뚫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된다.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 새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말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협약을 맺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5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투자협약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이달 말 투자협약을 맺은 뒤 구체적인 공장 규모와 착공 시기, 투자금액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공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약 1조원을 들여 2022년까지 연산 20만 대 규모의 완성차공장을 짓는다는 목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자를 통해 연산 30만 대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생산 차종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다목적 차량(MPV), 세단 등이다. 하이브리드카(휘발유·전기 혼용차)와 전기차 등을 추가 생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익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를 찾았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현지 시장 진출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정 수석부회장은 “인도네시아는 매우 도전적인 시장”이라며 “시장 진출을 위한 해답을 찾기 쉽지 않은 곳”이라



▲ 정익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왼쪽)이 지난 7월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단에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달리 ‘정치적 리스크’가 작다는 점도 투자 배경으로 꼽힌다. 현대차는 이달 말 인도네시아 정부와 투자협약을 맺기로 했다. 업

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다목적차량(MPV), 세단 등이다. 하이브리드카(휘발유·전기 혼용차)와 전기차 등을 추가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아 자동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역을 확장하려는 현대차와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현대차는 다른 해외 시장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앞세울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지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한국 차의 경쟁력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1% 미만인 현지 시장 점유율을 20~25%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아프리카·중동 진출도 검토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베트남 시장 공략도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현대차는 지난 1월 베트남 탄콩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탄콩그룹은 2009년부터 베트남 현지의 현대차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베트남 시장에서 5만5924대를 팔았다.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현지 시장 점유율은 작년 말 기준 19.4%로 일본 도요타(24%)에 이어 2위다.

현대차는 반제품조립(CKD) 방식으로 소형차 i10을 생산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베트남 2공장을 설립해 연간 생산 규모를 최대 10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완성차공장을 짓고 베트남 생산량도 늘리기로 하면서 ‘아시아 생산벨트’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과 인도에 치우쳤던 생산·판매 전략을 동남아로 확장해 정체된 글로벌 판매량을 끌어올릴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아시아 생산벨트 구축을 마무리하면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눈을 돌릴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중부 나이지리아 등지에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현대차 ‘新남방 교두보’ 는 인도네시아 ... 도요타 맞서 영토 넓힌다 연산 20만대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 2022년 완공

고 말했다. 도요타 등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90% 이상 선점한 시장을 뚫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 나도 직접 챙기겠다”고 거듭었다. 이때만 해도 현대차그룹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동남아 핵심 거점으로 육성  
현대차는 장고 끝에 최근 ‘결단’을 내렸다.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을 딛고 새롭게 개척할 ‘신(新)시장’으로 인도네시아를 낙점했다. 인구(2억7000만 명)가 많아 자동차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큰 데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호주 등을 목표로 한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

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부지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직접 매입해야 한다”며 “부지 매입 대금과 인센티브 조건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들어설 새 공장 부지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델타마스공단에 있다. 일본 자동차회사 스즈키와 미쓰비시 공장 등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현대차가 2017년 인도네시아 AG그룹과 합작 계약을 맺고 설립한 상용차 조립공장 과도 가깝다.

현지에서 설립할 완성차공장 규모는 연산 20만 대다. 향후 연산 30만 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약 1조원을 투입한다. 생산 차종은 동남아 현지에서 통할 소

현대차는 동남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가 매년 쑥쑥 자라는 추세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인도네시아에선 지난해 115만1291대의 차량(상용차 포함)이 팔렸다.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올해 판매량은 12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다른 동남아 국가의 자동차 시장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생산기지는 현지뿐만 아니라 태국 등 다른 동남아 국가와 호주 등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다.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완성차업체는 인도네

현대차인도네시아공장시동	
착공 시기	내년 상반기
생산능력	연간 20만대 (향후 연 30만대로 확장)
위치	자카르타 인근 델타마스공단
생산 차종	소형 SUV, MPV, 세단 (향후 전기차 생산 추진)
투자규모	약 1조원

**JOUN DOOR**

Flooring, Skirting

**DS PT. DONG SEO Furniture**  
Doors and Furniture Spesialis

**Our Product :**

- DOOR
- + Deco Sheet
- + HPL
- + LPM
- + Duco
- + Veneer

- FURNITURE
- INTERIOR MATERIAL
- FLOORING
- SKIRTING

Kawasan Industri Manis II, Jl.Palm Manis IV No.61  
Gandasari, Jatiuwung, Tangerang Banten - Indonesia

Marketing contact :  
☎ +62 021 591 5637  
✉ dongseowood@yahoo.co.id